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특허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 분쟁조정은 법적쟁송에 비해 시간이 짧고 경비도 적으면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 중소기업 또는 개인간 분쟁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의 특허기술사용과 관련된 특허기술 분쟁이 최근 특허청의 산업재

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다.

발명자 김모씨는 휴대폰 단말기의 문자 입력 기술에 대하여 A중소업체가 기술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A중소업체는 그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2차례 걸친 분쟁조정을 거쳐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업체가 개인 발명자에게 기술사용료 4,50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 합의는 금년 3월에 개정·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며 앞으로 법원에서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었다.

특허청은 특허침해관련분쟁은 특허심판의 경우 적어도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법원 소송의 경우 2~3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또는 개인간 특허분쟁은 정식재판 이전 단계에서 많이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분쟁해결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구성하여 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소송, 특허청이 도와 드립니다

특허청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KOTRA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이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심판 1,000만 원, 소송 3,000만 원)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우리 상품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였다.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

용 지원사업은 특허청이 '97년부터 실시해 오던 해외지재권보호센터 업무를 확장한 것으로, 그 동안에는 실질적 비용지원이 아닌 해외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수준에 머물렀으나,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이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외지재권 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은 74개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KOTRA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특허 무료로 사용하세요

특허청, 등록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특허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특허로 등록된 국유특허기술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유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자가 현재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약 1,400 여 건의 특허 가운데 3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약 600 여 건에 대하여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간 무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